

전주시, 민생·경제 탐방단 운영

코로나19 극복 위해 중소기업·상점가 등 찾아 애로사항 청취·지원방안 모색

전주시가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에서 코로나19의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민생·경제 탐방단을 운영한다.

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 내 중소기업과 상점가 등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생·경제 탐방단을 운영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탐방단이 방문하는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유통·서비스업, 청년기업 등으로 1대1 개별간담을 진행하게 된다.

시는 이를 통해 매출액과 고객 수 변화, 증원인 감축 등 현 실태를 면밀

히 파악한 뒤 코로나19의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극복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피해접수 통합창구인 기업애로 상담창구(281-2351)를 운영하고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 1대1 담당관제를 가동 중이다.

시는 또 수출기업의 판로 개척과 원자재 확보를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기업지원사업의 신속한 집행으로 힘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시는 (사)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와 함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팔복동 산업단지 주변에 대한 소독방역 활동을 펼치며 경제위기를 극복하지는 각오를 다졌다. 전통시장과 주요 상점가에 대한 소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집중하기도 했다.

김병수 전주시 신성장경제국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상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인, 상인 등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덕진구, 새봄맞이 공원·등산로 정비

공원 시설물 점검·공원 분수대 청소·소독 등 실시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김형조)가 봄철을 맞아 주요 공원과 등산로를 정비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덕진구는 도심 속 공원과 주요 등산로 등을 안전하고 편안한 시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새봄맞이 일제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먼저 구는 공원 내 운동기구와 화장실 등 편의시설물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는 노후화되거나 훼손

된 시설물을 점검하고, 어린이 놀이시설과 운동기구, 화장실 시설 등에 대한 안전사고 위험요소를 중점 정비할 계획이다. 또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해충퇴치기와 휴먼지털이기에 대한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업순공원의 무대 바닥 교체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공원 내 화장실 청소와 소독을 수시로 실시하고, 여성 안심벨에 대한 점검을 통해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범죄에 대한 사전예방에 힘을 기울인다.

동시에 구는 아람길공원 등 공원 분수대 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청소와 소독 용역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구는 도심 속 숲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총 2억5000만원을 투입해 건지산과 황방산, 인후공원, 기린공원 등 주요 공원 등산로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 수목 가지치기와 위험목 제거, 병해충 방제작업 등 녹지시설물 정비에도 힘쓰기로 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케비젼, 기술이전 협약식 가져

기능성 특허 균주 대한 기술이전

전주시가 전북지역 농생명산업 발전과 우수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자체 보유한 특허기술을 기업에 이전해줬다.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원장 유강열, 이하 연구원)은 지난 4일 전주지역 바이오식품기업인 (주)케비젼(대표 신홍식)과 기능성 특허 균주에 대한 기술이전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연구원은 케비젼에 △유해세균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락토바실러스(젓산균) 균주 △유해세균에 대한 항균용 미생물 제제 제조개발 기술 △초유로부터 분리된 공액리놀레산 생산 균주 △기능성 식품 및 의약품 개발 특허기술 등을 이전했다. 락토바실러스의 경우 유제품·김치류·양조식품 등의 식품제조에 이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지난 4일 전주지역 바이오식품기업인 (주)케비젼과 '기능성 특허 균주에 대한 기술이전 협약식'을 가졌다.

용되는 균주이며, 공액리놀레산은 과체중인 성인의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불포화지방산의 일종이다. (주)케비젼은 이전 받은 기술을 토대로 향후 기능성 식품과 의약품 개발을 추진, 본격적인 사업화에 나설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중국인 유학생에 전주푸드 도시락 제공

전주푸드종합지원센터, 3월 매일 점심 도시락 무료 지원



전주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주시지역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중국인 유학생에게 점심 도시락을 제공한다.

전주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주시지역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중국인 유학생에게 점심 도시락을 제공한다.

전주푸드종합지원센터(센터장 강성욱, 이하 센터)는 전북대와 전주대, 전주비전대 등 대학 기숙사에서 자율보호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3월 한 달 간 매일 점심 도시락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 3일 전북대 160개, 전주대 23개의 점심 도시락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5일부터 전주비전대 유학생을 추가하여 이달 말까지 각 대학 기숙사 관리업체에 도시락을 전달할 계획이다. 점심 도시락은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전주에서 생산된 신선 농산물을 만들어진다.

이에 앞서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

지를 위해 대학과 협의해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을 대학 기숙사 등 거주지까지 수송하는 등 보호체계를 가동해왔다. 또, 중국인 유학생을 위해 코로나19 관련 중국어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중국인 유학생을 위한 지원에 힘써왔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자율보호 중인 중국인 유학생에게 따뜻한 집밥 같은 전주푸드 도시락을 지급해 건강도 지키고 전주푸드의 우수성도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주푸드 도시락을 통해 균형 잡힌 식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